

이태리 돌로마이트 성 막달레나 성당



Val di Fune Valley, 2019

알프스의 6월 햇살은 포근하지만 반짝이듯 맑았다.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봄꽃과 산 정상에 만년설이 묘한 대조를 이루어 가벼운 흥분으로 마음을 들뜨게 했다.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중의 Dolomite 는 18개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높은 것은 20000ft 이상 하늘로 뻗어 있는 유네스코 지정 유적지로 여름이면 등반, 하이킹, 캠핑, 그리고 겨울이면 스키 리조트로 늘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원래 오스트리아 땅으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사람들이 섞여 평화롭게 살던 곳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군국주의 군대가 침공하여 점령한 이후 이탈리아 땅이 되었다. 지금도 간판이나 이정표는 3개 국어로 되어 있다.

St. Magdalena Church 는 Olde Mountain의 멋진 뒷 배경과 함께 Dolomites 의 Val di Fune 계곡의 상징처럼 되어있다.

Olde mountain 을 중심으로 한 계곡 전체의 모습을 렌즈에 담기 위해 (작은 사진) 마을 뒷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른 아침이라 작은 트럭이 짐집마다 우유를 수거해 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만치 언덕 아래에는 한 무리의 젓소들이 방울소리를 내며 풀을 뜯고 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한 반시간 Olde Mountain을 향해 골짜기 안쪽으로



Canon-5DSR 1/250, f8, 28mm, ISO200

들어갔다. 그리고는 St. Madalena Church 를 좀더 가까이서 내려다 볼수 있는 맞은편 언덕에 올라가 삼각대를 폈다.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마음이 바빴다. 오늘 맞이한 이 장면은 일년 사계절 동안 태양과 구름, 노을과 낙엽, 쌓인 눈의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천가지의 다양한 모습 중의 하나일 뿐일 것이다.

이 성당은 이 지역 풍경의 중심이다. 중세 교회로서 성 막달레나에게 헌정 된 이 교회의 정확한 설립연도는 알수 없으나 1394 년의 연대기에 언급되어 있으며 돌로 쌓아 만든 성당의 종탑은 초기 건축물의 일부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성당 내부는 바로크 양식 요소에 따라 제단에는 교회의 수호 성인인 성 막달레나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성 베드로,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의 조각은 제대의 양 옆에 배치 되어있다.

좀더 완벽한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 성당에 더 가까운 언덕으로 내려갔는데 넘치는 관광객들로 인해 농사를 망친다는 농부의 불평 때문에 아쉽지만 서둘러 떠나야만 했다.

사진과 글 변태용 요셉

사순
제 4주일

2023년
03월 19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 ~금-9:00 AM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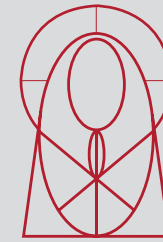
#Tel :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요일
(10AM~3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채희백 바오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요한 9,1-41)

< 이번 주 전례안내 >

- # 제 1독서 사무엘기 상권16,17르코모.6-7.10-13
- # 화답송 시편 23(22),1-37.38-45.6(◎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 제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5,8-14
-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복음 요한 복음 9,1-41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 성가 입당 117 봉헌 342 성체 167 파견 280

🌸 에디슨 한인 공동체에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들 환영합니다!

🌸 미사지향 (연미사)

- 배인호(스테파노) - 먼로 구역
- 이석종(스테파노) - 가족
- 추성태(바오로)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이규호 - 가족
- 소형덕(베드로) - 가족
- 성태영(바오로) - 성낙순(미카엘라)
- 성용순(미카엘라) - 성낙순(미카엘라)

🌸 미사지향 (생미사)

- 염은미(클라라) - 가족, 성가대
- 김종숙(마리아) - 민 엘리자벳
- 채미영(테레사) - 성가대
- 한상철(빈첸시오) - 한 안나, 어부마을 회원들
- 한주희(토마스 아퀴나스) 가족 - 한 안나
- 한서윤(올리비아) - 송진영(마리스텔라)
- 나제이(퀸틸라) - 송진영(마리스텔라)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 헌금 (148명).....	\$1,527
• 2차 헌금 (유타리티).....	\$634
• 교무금.....	\$1,870

이광재(2-3)	백상현(3)	오경선(3-4)
하건철(1-2)	서경호(3-4)	서영원(3-4)
박재영(3-4)	김영필(3-4)	오용덕(3-4)

🌸 2023 Bishop's Annual Appeal (Renewed and Sent on Mission by the Eucharist)

- 2023년 목표금액은 \$37,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되며 3/10까지 약정 금액은 \$17,180.14 (목표금액의 46.43%)입니다.
- 3/18-3/19 는 In-Pew Weekend입니다.성당좌석에 비치된 BAA 약정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장에게 주시면 교구청으로 함께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 메타천 교구내의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3 Bishop's Annual Appeal 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영철(프란치스코)	하건철(안토니오)
오용덕(헨리코)	오경선(원선시오)
염은미(클라라)	하준석(마태오)
곽 올리안나	방진숙(테레사)

🌸 본당 관리 유지 현황

- 성당 무선 마이크 점검 보수 시행
- 성당 제대 위 전등 수리 중
- 감사합니다!

🌸 2차 헌금

- 3월 26일: 부활절 꽃 장식
- 4월 2일: 교구청 주관 은퇴 사제 및 수도자를 위한 헌금

🌸 2023년 3월 매일 미사책을 신청하신 분은 성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 미사

- 일시: 3월 26일(사순 제 5주일) 오전 10시 30분
- 제임스 체키오 주교님께서 우리 성당에 오시어 현지 공동체와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 후 주교님의 성모동산 축복식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사순시기동안 매 주일11시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 3/26 (주교님 방문) 과 4/2(성지 주일)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개별적으로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썸머셋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3월 19일(주일) 친교실

🌸 피스브릿지 구역 모임

- 일시 및 장소: 3월 19일(주일) 친교실 회의실

🌸 레지오 마리에 아치에스 행사

- 일시 및 장소: 3월 26일(주일) 미사 후 오후 1시 성당
- 레지오 마리에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로서, 협조단원분들과 레지오에 관심 있으신 모든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 성당 화단 가꾸기 봉사

- 봄철 성당 주변 화단 가꾸기 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과 나무 및 꽃 구매 후원을 해 주실 분들은 사무실 또는 유용희(올리비아) 자매님께 연락 바랍니다.
- 개별 식수도 접수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매년 꽃밭 가꾸기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미동북부 M.E. 제 79차 부부주말

- 일시: 2023년 5월 27일(토) 오후 7시-29일(월) 오후 5시
- 장소: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 참가 신청서는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성당 입구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 WYD 세계 청년대회 리스본 및 파티마 성진순례

- 일시: 2023년 7월 30일 - 8월 7일 (8박 9일)
- 참가비: \$2,750+항공료 (15명 선착순)
- 지도 신부: 조민현 요셉
- 문의: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917-301-0219 / Email qpmm81@gmail.com
- 성당 입구 포스터 참고 바랍니다.

🌸 미 동북부 레지오 마리에 주관 과달루페 성지 순례

- 일시: 2023년 10월 10일(화) - 13일(금)
- 장소: 멕시코 과달루페
- 인원: 선착순 25명
- 신청마감: 2023년 6월 30일까지
- 지도신부: 장재명(파트리치오) 신부
- 참가비 \$1,700 (3박4일, 항공료 및 Tip 포함)
- 접수 및 문의: 채미영(테레사) 꾸리아 단장

🌸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16,17,18,6-7.10-13L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어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불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5,8-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요한 복음9,1-41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यो.”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यो.”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던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가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